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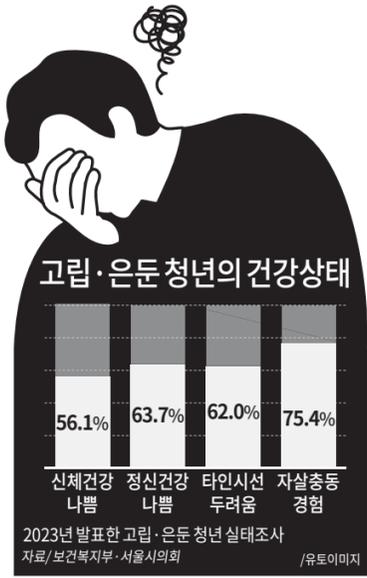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약 13만명 도움 필요한 청년 발굴·지원해야

지원받는 고립청년 0.43% 불과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확률 높아
기관 존재 알리고 연계 강화해야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이 약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립 생활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하루빨리 발굴, 중·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7호에 따르면, 시에서 추산한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12만9852명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는 557명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고립·은둔 청년의 0.43%선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고립 척도 점수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례별로 나눠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활동형에는 직무훈련·일 경험 프로그램·자립생



활을, 활동제한형에는 자기성장을, 은둔형에는 기초 생활 밀착지원 프로그램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지원을 받은 청년이 0.43%라는 것은 아직까지 수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하루빨리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은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회활동 실패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더 나아가 우울·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고, 질병 발병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은둔 경험에 있는 청년 중 신체건강,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6.1%, 63.7%였다. 미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은 66.3%였고, 타인의 시선 및 대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62%와 47.8%로 나타나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또 고립·은둔 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26.7%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윤지민 예산분석관은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발굴하는 부분"이라며 "지원하는 기관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중대 부실시공 발생시 즉시 재시공

공공건설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으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8일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초·중·고졸 검정고시... 5097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 서울시내 12개 고사장에서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61명, 중졸 898명, 고졸 3838명이 응시한다.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0명, 재소자는 48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선린중(1개교)이며, 중졸은 대영중·월곡중(2개

교), 고졸은 중앙중·신복중·서운중·송파중·광남중·공릉중(6개교)이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날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시 제출한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4주간 교육

오늘 필리핀서 입국 후 특화교육
오는 9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다고 5일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입국** 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 국내 교육** 8월 6일~9월 2일 특화교육 실시
기본교육 16시간+직무교육 144시간
- 서비스 제공** 9월 3일 서비스 제공 시작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자료/서울시

공동숙소는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들은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7개월간 살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달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 올 8월 중 가사관리사를 매칭해 오는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수원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연다

미래 특화산업으로 반도체 육성

수원특례시가 반도체 분야를 미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해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팹트론, 레조나 코리아 등 내로라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 등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및 부품, 기술 솔루션 등 품목별 전시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행사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최신 동향과 기술을 알아보는 세미나와 국제포럼, 구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전남 영광·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영광 칠해, 신안 후광 '조건부 허가'
1.3GW 규모 추가... 총 17.3GW 허가

전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 300차 전기위원회에서 도가 찬성의견을 제출한 영광 칠해1·2,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이 신청한 영광칠해1·2는 발전용량이 각각 510MW로 합계 1천20M

W다. 전남개발공사가 신청한 신안 후광은 발전용량 323MW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기존에 허가받은 16GW 규모에 이번 1.3GW 규모를 더해 총 17.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전남도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386.5GW)의 32%인 125GW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건부 허가는 2031년 12월 계통보강 이후 연계 가능

하다는 한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계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추가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접속 제한 시기인 2031년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7월 26일 여수·고흥·해남·영광·신안 5개 시군과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주도 신규 345kV 변전소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0 해질 / 19:35

8월 6일 (화) 음력 : 7월 3일

수도권 날씨 27~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5/33, 동두천 26/33, 가평 25/33, 파주 25/33, 서울 27/33, 양평 26/33, 인천 27/32, 수원 27/33, 용인 27/33, 평택 26/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블링컨 “이란, 이르면 5일 보복 가능 경고”
/사진 뉴시스
▲예멘 정부, 구호기금 부족으로 “보건 의료 위기” 압박 예고

▲바이든 대통령, 5일 NSC 긴급 소집... “중동 사태 논의”
▲EU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당선 “인정할 수 없어”



▲홍콩 폭염으로 지난 10년간 1677명 ‘추가 사망’
▲재외동포청장 “히로시마 아픔 잊지 않고 후손에 모든 지원”
/사진 뉴시스